

# 근대 조명·불교경전... 봄 학술대회 '풍성'

불교 및 종교 관련 학회들이 5월 일제히 춘계 학술대회를 연다. 주제로 동아시아 근대 불교에 대한 조명부터 불교전적, 종교교육 등 다양하다.

가장 눈길을 가는 것은 동아시아 근대 불교에 대한 연구들이다. 불교학연구회는 오는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 불교의 근대성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김성연(동국대)의 '1910년대 불교계의 근대화론과 종교성' △김종진(동국대)의 '1930년대 불교지와 문학' △정혜정(원광대)의 '지불 마음수행의 역사적 변용' △우동필(전남대)의 '니가야로 본 중론의 십이연기' 등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이경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순석(한국국학진흥원), 김상일(동국대), 김정훈(경기대), 이종수(순천대), 박효정(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은 공동으로 춘계 학술대회를 연다.

'근대 동아시아 불교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5월 28일 위덕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진(동국대)의 '중국 근대의 불전 수입과 불서 편찬의 시대성' △이태승(위덕대)의 '일본근

- 불교학연구회
- 한일 불교 근대성 모색
- 근대화론과 종교성 주목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한중일 불교 근대 조명
- 韓佛교학 전망 등 발제

대 불교가 이노우에 엔로우의 활불설에 대해' △김원명(한국외국어대)의 '한국 근현대 불교학의 과제와 전망' △조명제(신라대)의 '동아시아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등이 발표된다.

주요 토론자로는 김영덕(위덕대), 원영상(원광대), 윤종갑(동아대), 석길암(동국대)교수가 나선다.

동국대 박물관은 개교 1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 전시회인 '여시아문-깨달음의 길'과 연계되는 학술대회로 한국과 일본의 불교전적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일의 불교전적'을 주제로 5월 20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 학자 5명이 발표자로 나선다.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는 '원효<이장의> 현묘-은밀문의 사상사적 검토'를,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한국불교 경전의 결집과 간행'을, 미야자키 겐지(宮崎健司) 일본 오타니대학(大谷大學) 교수가 '일본의 대장경사'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또한,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분황 원효의 <십문화쟁론>과 <판비랑론>내용과 사상적 의의'를 주제로 고찰하며 마키 아키마루(三木彰圓) 오타니대 교수가

'진란의 <현정도진실교행증문류>에 있어서 불전의 수용'에 대해 발제한다.

이와 함께 동국대 박물관은 오는 6월 10일까지 개교 1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여시아문(如是我聞)-깨달음의 길'을 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본의 오타니 대학(大谷大

- 동국대 박물관
- '한일 불교전적' 주제로
- 원효 등 주석서들 분석
- 종교교육학회
- 현 교육과정 내 종교 논의
- 각 종교교육별 과제 살펴

學) 박물관의 협조로 이뤄지며, 팔만대장경 인출본 중 가장 오래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10(大般若波羅蜜多經 卷第10)> 등이 전시된다.

한국 종교교육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

리도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는 5월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708호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병철(한국학중앙연구원)의 '종교학 교육과정의 개정 흐름과 방향-2015 종교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귀성(원광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학 교과 교육의 쟁점과 과제'가 총론격으로 발표된다.

이어 종교별로는 이승곤(前 동국대 강사)씨가 '듀이의 종교관 측면에서 본 2015 개정교육과정과 불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발표하고, 개신교·가톨릭·통일교·유교 등 각 종교별 교육 현황과 과제를 살핀다.

최준규 한국종교교육학회장은 "2015년 9월 고시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종교학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학교의 종교교육이 나아가 갈 개념적·실천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완주 송광사, 사찰음식 체험관 '사운당' 낙성

5월 9일, 총 예산 13억원 소요



경내에 건립된 체험관 전경 모습.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5월 9일 경내에 사찰음식체험관과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준공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사운당(四雲堂)으로 명명된 사찰음식체험관은 정면 9칸, 측면 3칸에 578㎡ 규모로 지어졌다.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후 8개월 만이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지성 스님,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 팔달사 회주 해광 스님, 한광수 송광사 신도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운당은 살아 움직이는 활기

사운당, 정면 9칸 측면 3칸 578㎡ 사찰음식 우수성 포교 중심 역할

차고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의 밥상, 나눔의 밥상, 평등의 밥상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은 법어에서 "사운당 건립은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불국토를 이룩하려는 뜻이 담겨있다"며 "미혹하며 깨달았다고 하는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마음 광명은 천지에 가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도 "마음 씬 씬이에 따라 즐거움도 괴로움도 생길 수 있다"며 "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사운당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 같이 몰려들 듯이 사해의 청풍납자와 단월들이 운집해 대승의 법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예산은 불교문화사업단 보조금 4억 원과 전라북도 2억 원, 완주군 2억 원, 자부담 5억 원 등 총 13억 원이 소요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고창 선운사, 금연캠프 연다

참가비 무료 6월 10일, 7월 1일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금연의 지가 있는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제의 무료 금연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금연으로 빛나는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금연캠프는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10~11일과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민 각 2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금연 템플스테이는 교수(전문), 간호사, 금연상담사 등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금연 및 건강 관련 특강과 니코틴의존도 평가, 1대1 금연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기본프로그램인 발우공양, 예불, 108배, 포항, 참선도 진행된다.

금연캠프 템플스테이 수료 후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연계해 6개월간 금연상담 및 금연 보조제를 지원한다. 또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기념품도 제공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나 캠프기간에는 교육 목적 및 장소특성상 절대 금연해야 하며 캠프 수료 후 2주 이내 지역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야 한다. (063)561-1375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처님 생명살림 가르침 'LED연등'으로 실천

불교계, 친환경 실천위해 도심 2만개 연등 교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시내 사찰과 주요거리가 봉축연등으로 빛나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올해 서울도심 가로연등 2만개 중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세종로, 종로, 북촌, 을지로지역의 1만개를 친환경 고효율 LED로 교체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각 사찰 역시 약 1만여개의 연등을 LED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국대 정각원의 경우 동국대 내 1500개의 연등을 LED로 설치했으며, 일산 바이오메디칼캠퍼스에는 300여개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연등을 설치했다.

동국대 정각원 관계자는 "2014년 동국대 108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태양광 연등을 설치 한 이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지만 일산 캠퍼스에 이번에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사찰 중 성불사, 소림사, 열린선원, 행복선원 등은 기존 백열전구

등(10W)에서 LED전구(3W)로 교체했다. 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사동 일대의 건물도 내·외벽 연등장식을 LED전구로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살림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올해 LED연등으로 모두 바꾼 후 전기 절약과 발열 감소 등을 체감하고 있다"며

- 봉축위 1만개, 각 사찰 1만개
- "전기 절약 및 발열 감소 체감"
- 東大 불교대 총동창회 적극 홍보

"연등불빛도 이전보다 더욱 밝은 듯하다. 생명살림을 통해 부처님이 오신 참 의미를 살린 듯 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에너지 절약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5년부터 에너지절약 및 원전 폐지 홍보를 하고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가 그 주인공이다.



청계천 등축제 모습.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연등으로 설치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서울시와 함께 5월 11일부터 청계천 광통교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원전 하나줄이기 및 에너지 절약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부스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는 후문이다.

김석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이 기간 청계천 등축제를 하기에 LED연등과 관련해 에너지 절약을 설명

하고 있다. LED로 교체하면 전체 소비 전력이 70% 감소한다. 불자들이 시민들이 동참하여 백열전구만 LED전구로 바꿔도 원전 1개를 줄일 수 있다"며 "불자들뿐만 아니라 점심, 퇴근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심이 높다. 불교계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진행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마음속 피는 꽃이 당신의 부처님입니다”

덧없는 속삭임, 차 한잔의 기쁨, 5월의 명상... 덕조 스님이 불일암에서 피운 맑고 성광 같은 깨달음의 순간들

# 마음 꽃을 줍다

덕조 스님 글·사진 | 232쪽 | 12,900원 | 율리

생각이 단순하면 마음이 깊어진다고, 기도한 만큼 성숙해진다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고 스님 특유의 따뜻하고 겸허한 향기로 풀어내는 기도의 단상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가 읽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 좋습니다. 이해인 수녀

덕조 스님 | 법정 스님의 만상자, 법정 스님께서 머무시던 불일암에 살며 수행하고 있다. 송광사로 출가하여 송광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대안에서 계율학을 공부했다. 전 서울 길상사 주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 송광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했다.

## 깨달음에 이르는 더 빠른 방법이 있다!

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평화롭고 명쾌한 지혜의 방편

#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달는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선생이 안내하는 연기법 수행의 요체 연기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 연기법 이론부터 연기법 그리기, 수행 중 마주치는 경계에 대한 질문과 대답, 먼저 수행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마음공부의 어려움으로 방향을 잃은 당신을 위한 가장 쉽고 실질적인 수행법.

세상의 진실에 눈뜨게 하는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안내자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 180쪽 | 28,000원 | 양장

김영사